

역사와 자연, 삶이 어우러진 오대산 옛길



우리나라 옛길은?

옛길에는 소로(小路)와 대로(大路)가 있습니다. 소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자연스레 만들어진 길이고, 대로는 나라에서 국방, 경제 등의 필요에 따라 토목공사를 거쳐 뚫은 길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대로는 10개가 있었지만, 일제시대부터 전차나 자동차를 위한 신작로를 뚫고, 옛길 위에 포장을 덧씌우면서 본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옛길은?

오대산 옛길은 월정사에서부터 동파골까지 약 5km의 숲길로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까지 상원사까지 다니던 불교신도들의 순례길 이었고, 일제시대대 월정사 위에 큰 나무공장이 들어서면서 화전민들과 벌목꾼들이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희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옛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 선인들의 발자취와 옛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통해 이곳만의 문화를 오감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0144 - 02 - 1445과

풍요로운 자연 속으로, 오대산

국립공원해설프로그램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전나무숲자연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1시, 13시	전나무숲 자연관찰로
월정사역사문화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1시, 13시	월정사 경내
상원사역사문화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4시	상원사 경내
소금강 자연(경관)해설 (국립공원 인증프로그램)	연중/매일 10시, 14시	소금강 자연관찰로
방아다리 자연해설	매주 금요일 14시	방아다리 자연관찰로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참가방법 : 선착순 예약(3일전 예약)

- 전 화 : 033-332-6493
- 인터넷 : <http://odae.knps.or.kr>

천년의 시간을 품고 떠나는 옛길여행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5-6
Tel 033)332-6417~8
<http://odae.knps.or.kr>

Nature, Our Future!



천년의 시간을 품고 떠나는 옛길여행

옛길을 걷는다는 것은 옛사람들이 걸었던 가장 원시적인 걸음으로 미래로 향하는 행복한 시간 여행입니다.



1 오대산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옛길 입구에는 일제시대때 일본인이 운영하던 큰 회사(오대산에서 베어낸 나무로 재목을 만드는 제재소)가 있어 이곳을 회사거리라 불렀으며 이 회사거리를 중심으로 상부에 약360여 가구의 화전민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화전민(火田民)이란 산에 불을 놓아 들풀과 잡목을 태운 뒤 그곳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로 1960년대말 화전정리사업과 화전민의 이주이전(移住移轉)으로 지금은 그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와집
예전에 화전민이 많이 사용했던 집으로, 기와대신 나무를 얇게 쪼개어 지붕을 이은 한국의 전통집입니다.

- 1 오대산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 2 오대천에 사는 물고기
- 3 숲의 옷 역할을 하는 작은키나무
- 4 숲의 개척자 지의류와 이끼류
- 5 잎이 바늘모양인 바늘잎나무
- 6 쉼다리
- 7 오대산에서 산림욕을...
- 8 거제수나무



Tip 산림욕에 적합한 시기는 광합성이 활발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좋습니다.

6 쉼다리

'쉼다리'는 나룻배를 띄울 수 없는 낮은 강에 임시로 만든 다리로 잘 썩지 않는 물푸레나무나 버드나무로 다리기둥을 세우고 소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다리 상판 위에 쉼(술가지나 작은 나무 등의 잎이 달린 잔가지)을 엮어 갠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다리입니다. 쉼다리는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는 10~11월에 마을사람들이 함께 다리를 만들어 겨우내 강을 건너다니는 다리로 이용합니다. 여름이 되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므로 '이별다리'라고도 합니다.



7 오대산에서 산림욕을...

숲 속에 들어가면 신선한 공기와 향긋한 나무 냄새를 맡게되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는 식물들이 각종 병균과 해충, 곰팡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뿜어내는 방향성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 (Phytoncide) 덕분입니다. 해발700m의 오대산 옛길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마음껏 쉼이며 몸의 면역력도 높이고, 더불어 오감을 자극하는 자연경관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챙겨주세요~

